

광양시, 제17회 2023년 전라남도농업경영인대회 유치 확정

4개 시군 치열한 유치 경쟁에서 광양시 최종 확정 “농업 발전 방안 찾고 광양농업 발전 행사위해 최선”

광양시는 2023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개최 장소로 광양시가 최종 확정돼, 광양시 최초로 전라남도 후계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한다.
제17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4개 시군(광양, 영광, 무안, 신안)이 유치를 신청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2022년 8월 24~25일(2일간)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장소를 확정하기 위한 평가가 이뤄졌으며, 전주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

라남도 연합회 수석부회장을 평가위원장으로 구성된 24명의 평가단이 각 시군의 유치계획과 현장 실사를 평가해 최종 유치 장소를 결정했다.
8월 25일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치 설명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광양시의회 의원과 강정일·임형석 도의원 등이 참석했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 회원과 광양시청년회 등 많은 시

민이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이 힘든 시기이며 농업인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라남도 농업경영인 대회를 통해 농업이 발전할 방안을 찾고 광양농업도 발전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치 포부를 밝혔다.
2023년 제17회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가 주최하고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광양시연합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2023년 8월 중 2박 3일로 개최되며, 장소는 광양읍 서천면 일원이다.
광양=기동취재본부



보성군, 2022 을지연습 기간 중 실제 훈련 실시

보성군은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실시한 '2022년 을지연습' 마지막 날인 25일, 테러 대응 및 화재 대비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보성군청 폭탄테러에 따른 화재진압 및 대피 훈련'으로 보성소방서, 보성경찰서, 제7391부대 2대대 등 6개 기관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실제훈련은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훈련에 참석한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훈련으로 각종 비상사태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각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참여해주신 유관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분청사기 학술대회 개최

고흥군은 사적 제519호 및 전남기념물 제80호 운대리 가마 출토 제기 성격 규명을 위한 분청사기 학술대회를 26일 고흥분청문화박물관에서 개최했다.
고흥 운대리 일원은 청자 가마 5개소와 분청사기 가마 27개소가 단일지역에 밀집된 대단위 요장(窯場)이며, 덩빙분청분청사기 제작지로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큰 유적이다. 덩빙기법은 분청사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그릇 전체에 백토만 입혀서 표면을 백자처럼 보이게 하는 제작기법을 말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조선 전기 국가의례와 분청사기 제기”라는 주제로 열려, 조선 전기 국가의례의 성립과 전개·라는 특별강연과 함께 전국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제기의 생산 및 소비 유적 출토 현황과 종류를 분석하는 시간이 됐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여수시, 추석 연휴 ‘영락공원’ 사전예약 등 이용 안내 추모의 집 사전예약·e하늘 장사정보 온라인 성묘 시스템 운영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성묘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기간 ‘영락공원’ 운영 일정과 방법 등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시는 연휴가 시작되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추모의 집 성묘객을 시간당 300명(Ⅰ,Ⅱ관 별도, 일 최대 6천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성묘 인원은 최대 4명, 추모 시간은 20분 이

내로 제한된다.
지난 24일부터 시 홈페이지 배너(추석 명절 사전예약 바로가기-OK통합예약)를 통해 사전예약을 접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모의 집 2개소의 ‘제례단’은 9월 9일부터 4일간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매일 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리 성묘하기 ▲최소인원 방문하기 ▲머무는 시간 줄이기 등 영락공원 이용수칙을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성묘가 가능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온라인 성묘 서비스’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동시간대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추모의 집 사전예약을 실시하니 성묘객들께서는 일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영락공원 내 장사시설(화·매장)은 추석 당일(9월 10일)만 휴무하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한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순천시 “어르신 손맛 담긴 추석선물로 마음을 전하세요”

순천시니어클럽 손질멸치, 김치 등 추석선물세트 판매



순천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서는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손질멸치, 배추김치 등 추석 선물세트를 판매한다고 25일 밝혔다.
선물세트는 남해안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건어물(손질멸치, 보리새우, 건표고, 톳 등)을 손질한 세트와 모두가 선호하는 김치, 누룽지, 수제청 등 총 8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건어물 세트 3종은 2만원, 프리미엄 세트 5만원, 김치 세트 3만원에서 5만원, 누룽지 세트 1만원, 수제청 2만원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머니의 손맛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관식 순천시니어클럽 관장은 “생산물 판매 수익금 전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관심과 구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추석 선물세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니어클럽(061-745-60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